



스미스소니언 수장고의 조선도로 추정되는 칼. 1941년 5월23일 매리 E. 맥스웰이 기증한 '일본 장군도(Japanese General)' 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 칼로 둔갑해 울고 있는 '조선도'

〈朝鮮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수장고서 발견

조선의 칼이 미국 최대 박물관에서 일본, 중국 장군의 칼로 한세기가 넘도록 잘못 분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기반의 한국 문화연구 비영리단체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KAS·회장 로버트 텔리)는 지난 9일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NMNH)의 수장고를 방문, 일본·중국 무기고에서 조선의 도(刀)로 추정되는 칼 2자루를 발견했다.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이다.

KAS의 로버트 텔리 회장은 현장에서 찍은 18장의 사진을 본지에 보내왔다. 사진 속 유물번호를 NMNH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다. 이중 중국 무기고에 보관중인 짧은 도는 1908년 2월 19일 미육군의 어헌 대위(Capt. Ahern)이 기부한 '중국 장군도(CHI GENERAL)'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긴 칼은 일본 무기고내 유물로 1941년 5월23일 매리 E. 맥스웰이 기증한 '일본 장군도(Japanese General)'로 구분되어 있다. 칼들은 각각 검신이 26인치(66cm), 30.75인치(78cm)로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도의 한국 유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경인 미술관의 조선도점 전문가 이석재 관장에 게 문의했다.

이 관장은 "두 자루 모두 18세기 조선 후기의 우리 문화재"라고 확신했다. 첫 번째 도는 전쟁터에서 실제 사용된 전투용 칼인 '흑철황동장소환도'로 감별됐다. 그 이유로 ▶검삼병(칼날이 손잡이 길이의 3배) 형태 ▶칼집의 저피(돼지가죽을 무두질한 것) ▶위 아래의 황동 장식 ▶곡물 없는 각진 칼날로 꼽았다.

정구현 기자
→ 2면 '조선도'로 이어집니다

최근 1년간 추방유예 신청 한인 7408명 중 89%인 6596명이 혜택

멕시코 등 이어 5번째

작년 8월15일 부터 시행된 불법 이민자 추방유예(DACA)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은 한인이 6596명으로 집계됐다. 추방유예는 31세 미만의 불법이민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전체 추방유예 혜택자는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 발표한 DACA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2012년 8월 15일부터 올 7월 말까지 한인은 7408명이 서류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국가별 추방유예 신청현황

출신국가	서류승인	노동허가증 승인
전체	552,918	430,236
멕시코	421,649	329,833
엘살바도르	21,134	16,118
온두라스	14,213	10,066
과테말라	13,781	10,080
한국	7,408	6,596
페루	7,254	6,124
브라질	6,034	4,796
콜롬비아	5,508	4,709
에콰도르	5,272	4,284
필리핀	3,615	3,080

(기간 2012년 8월 15일~2013년 7월 31일)

89%가 노동허가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총 57만3404명이 서류를 신청했으며 이중 55만2918명이 서류 인증을 받아 수속중이다.

증명서 미비로 접수과정에서 각각 된 서류는 2만486건으로 조사됐으며, 최종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노동허가증을 받은 혜택자는 43만236명으로 77.8%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인은 멕시코 등에 이어 5번째로 승인이 많았으며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2만 7207명이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며 텍사스(9만900명), 일리노이(3만544명), 뉴욕(2만9575명), 플로리다(2만3456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한인 청소년 LA총영사관서 '광복절 울동' 15일,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파바월드(회장 강태홍) 소속 청소년 200여 명이 LA총영사관 주차장에 모여 '독도는 우리땅' 음악에 맞춰 광복절 축하 울동을 펼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서부 11개주 '산불 몸살' 44곳서 계속 확산

강풍을 동반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해 서부지역 11개 주가 연일 확산되는 산불로 진담을 빼고 있다. 국립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15일 현재 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아이다호, 유타와 하와이 등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 44개가 진행중이다.

아이다호 주에 경우 9개의 산불이 발생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는 8개, 오리건 주는 6개의 산불과 싸우고 있다. 각 주마다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날씨가 워낙 건조한데다 험한 산세로 진화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건조한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어 산불 발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남가주의 경우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8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현지 인턴기자

오늘의 본국지

전두환 미납 추징금 얼마나 내게 될까 >>2면

'이집트 원조 끊나 마나' 미국의 딜레마 >>7면

헤먼스님의 '젊은 연인' >>13면

파인리조트/요세미티
요세미티 공원 입구에서 170마일 거리
시에라 산맥 숲속 호수가
중가주 최고 아름다운 휴양지
한인 경영, 부역시설 완비된 106개의 통나무 캐빈
800-350-7463
55432 Road 432, Bass Lake, CA 93604
BassLake.com 호수 내이브/요세미티 파인리조트

the prius
Experience

Prius를 시험 주행할 수 있는 신나는 기회!
신나는 Prius 시승 & 시험 주행 이벤트에서 Prius도 타보고 당신 마음에 꼭 드는 Prius도 찾으세요.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oyota.com/prius/kr 에서 확인하세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전통을 이어가는 4 가지 다른 길

Prius의 모델이 이제 4가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모델은 자신만의 개성으로 프리우스 패밀리 전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징이 된 오리진 Prius, 아담하고 귀여운 Prius c, 한층 진보한 Prius 플러그인과 여유있는 공간의 Prius v - 이들 모두가 증명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Priu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OYOTA

함께 달리는-

선택 사양 전시. © 2013 Toyota Motor Sales, U.S.A., Inc.